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갑 국회의원 당선인

민생은 따뜻하게, 개혁은 시원하게!

최민희 보도자료

T. 02-784-4291 E. choimh867@gmail.com

한수원 협력사 해킹으로 72만 건 자료 유출...원전 정보까지 포함

문 의	신진영 비서관	02-6788-7006	choimh867@gmail.com

– 한수원, “중요 정보는 빠져나가지 않았다” 해명에도 논란

국내 유일의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협력사가 사이버 해킹을 당해 72만 건에 달하는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해킹은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알려졌으며, 한수원은 “주로 구형 원전 자료가 유출되었고, 핵심 기술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실(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갑)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의 협력업체가 해킹 공격을 받아 총 72만 건의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해킹 사건은 20년 9월과 24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한수원 협력업체 A사가 외부 악성코드 감염 예방을 위해 도입한 문서중앙화 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받으면서 발생했다. 유출된 자료 중 한수원과 관련된 기술자료는 약 11만 건에 달하며, 대부분 구형 원전 모델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한수원이 협력업체의 보안 관리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 본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협력업체들의 보안 인력 부족 문제도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이다. 중소기업의 보안 전담 인력 보유 비율이 24.3%에 불과한 상황에서, 협력업체의 보안 관리를 위한 한수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한수원에서는 신형 원전 등 핵심 기술의 유출이 없었다고 하지만, 이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이번 해킹 사건은 단순한 기술 유출을 넘어 국가 안보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해당 문서중앙화 시스템을 제공한 업체는 시장점유율 1위로, 조달청의 공공 소프트웨어 공급자로 등재되어 있다”며, “해당 업체가 보안 전담 인력과 설비를 강화하여, 이와 같은 유사한 해킹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